

불자 세상보기



이태호
조계사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이사

“힐링(healing)”이란 단어는, 한편으로는 ‘치료·치유(tending to cure)’의 의미로 쓰이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회복(restore to health)’의 의미를 가진다. ‘치료·치유’라는 표현은 병든 고지진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다소 의학적·의사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 반면, ‘건강회복’이라는 표현은 원래의 건강함을 전제로 해서 회복탄력적이고 자기지적인 의미가 강하면서 긍정적인 느낌이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대표적인 것이 ‘힐링’이다. 힐링을 치료치유의 의미 보다 건강성회복에 방점을 두고 보면 불교 수행이 힐링의 제대로 된 중요한 수단이다. 불교수행은 자신의 의지를 중요시 여기며, 마음이 본래 맑고 건강하다고 보고 이를 더욱 건강하게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까지 이

마음건강, 불교에 길을 묻다

르게 한다는 점에서 ‘힐링’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 대표적인 힐러(healer)들이 불교수행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스트레스 감소나 기업생산성 향상에 활용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Buddha)수행의 우수함과 위대함이 세계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지 새삼 재조명해보게 된다. 마음건강을 절실히 요청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서구의 치유자(healer)들이 11월 줄지어 방문한다고 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승려와 철학자>의 저자인 프랑스의 마티외 리카르(66) 스님과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MBSR)의 창시자 존 카밧진(68) 박사, 미국 담파수카명상센터를 이끄는 위발라람시(66) 스님 등이 그분들이다. 내년 5월1~15일엔 베트남 출신인 세계적인 치유자 틱낫한(86) 스님도 방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서양 힐러(healer)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처님(Buddha)수행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현대인들의 마음건강 회복과 마음활력 향상으로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티외 리카르 스님은 프랑스 출신의 세포유전공학 박사로서 27살에 히말라야 티베트로 날아가 티베트불교에 출가했다. 수행이 몸, 특히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가에 대해 실천적 사례를 제시했으며, 또한 현대인들에게 많은 정신적 평화로움을 주는 마음의 스승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매사추세츠 주립대 의과대 명예교수인 존 카밧진 교수는 이 대학 부설 ‘의료·건강 돌봄·사회에서 마음챙김을 위한 센터’(CFM·미국MBSR본부) 창립대표다. 그가 만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챙김명상(MBSR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심신의학 프로그램이다. 송산스님으로부터 참선수행 배운 그는 매사추세츠 주립대 의과대에서 만성질환이나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도 했다. 위발라람시 스님은 1974년 초기불교의 부처님수행법인 짜피(위빠사나)수행을 배워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수행지도하고 있다. 마티외 리카르 스님, 존 카밧진 교수,

위발라람시 스님의 방한이 가진 의미는, 한국사회가 엄청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신적 괴로움을 외국 수행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 우리사회를 힐링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자기 반성의 의미도 가진다. 불교가 가진 좋은 수행법들, 화두선, 짜피수행, 자비수행 등을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용어로 합리적으로 정리해서 마음건강을 회복시켜주는 힐링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해야한다. 이미 서양에서는 불교수행을 가져다 그들의 용어로 세련되게 다듬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불교가 머뭇거리 여유가 없다. 사회의 요구는 턱 밑까지 차올라 있다. 불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오랫동안 간직해온 노하우를 잘 다듬어서 사회에 던져주면 된다. 사회의 요구와 그 요구를 채워줄 준비된 프로그램이 만나면 사회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법이다.

社說

문화재 방재 대책 총체적 점검하자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전기합선으로 인해 10월 31일 전소됐다. 지난 10월 5일에는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을 전 태고종 승려가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내장사는 제대로 된 방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했고, 화엄사의 화재감지기는 잦은 오작동으로 꺼놓은 상태였다. 또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한 폐쇄회로 TV(CCTV)도 얼굴 인식기능과 적외선 감지 기능이 없어 소용이 없었다. 한 달 사이 주요사찰 방재예측시스템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중앙총회 제192차 정기회에서도 전통사찰 방재예측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문화부도 >사업 감리·감독 기구 운영 >현장 테스트 등을 통한 설비 보완 >종단·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공동 방재 시설 설치 기준 및 매뉴얼 마련 >권역별 시범 사찰 선정 등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사찰들을 유형별로 그룹화해 방재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소방차 진입 여부를 구분해 진입이 어려운 사찰은 수막 형성이 가능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사찰 환경에 맞는 방재 시스템이 만들어 매뉴얼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찰은 지금도 수행 공간으로서 성격이 가진 살아 있는 문화재다. 아무리 좋은 방재 시스템도 사람이 제대로 관리,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제대로 된 매뉴얼 정립과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소중한 문화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규탄 받아야 할 경산시 탁상 행정

“어기가 없다”는 말은 작금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요즘 말로는 속칭 ‘멘붕’, ‘멘탈붕괴’다. 경산시가 10월 29일 팔공산 선분사에 광복석조여래좌상 앞의 연등을 매단 임시 가설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정에 불교계와 당해 사찰인 선분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대입수험능력시험과 부처님오신날을 전후로 설치했다가 기한이 지나면 자진 철거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갓바위 부처님께 연등을 올리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의식이다. 그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든

사찰의 연등 설치물들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사람들이 2개월마다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답변하는 패기도 보였다. 공문을 보내게 된 계기도 일간지 지방기사가 쓴 지면 기사 때문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문제 제기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것이 정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문제였지, 즉흥적으로 구두로 자문을 구해 공문으로 처리할 사안 아니었다. 본인 역시 보낸 공문 한 장이 불교의 연등공양 정신을 무시하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지 모르고 있다. 흔히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비꼰다.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자신의 밥그릇을 보존하는 데 신경 쓰는 것을 빗댄 말이다. 이 같은 구태가 경산시정에서 문화재 담당 공무원에게만 해당되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하병석
성심보전교과사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활용으로 인한 생활의 편이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악용으로 폐해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악성 댓글로 인하여 유명인들이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해킹,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피해가 난무하고 있다. 인터넷 역기능의 해결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려움도 많다. 인터넷 실험제를 통해 악플의 예방하려 했으나 위헌으로 판정되었고 유해 정보의 기술적인 차단도 반대가 심하다. 이처럼 법률이나 기술의 강제적인 차단이 어려운 주요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이 지지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유엔인권선언에 명문화 되어 있고 민주화와도 관계 깊다. 익명성은 인터넷 역기능의 주요 원인이지만, 한편으로 화자의 심리적 보호와 인터넷의 평등성 추구라는 긍정적인 점은 인터넷의 핵심적인 선(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의 폐해를 염려하는 사람도 법률이나 기술의 강제적인 차단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윤리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가 정보윤리다. 정보윤리는 기존의 윤리를 응용하여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불교윤리에서 이것이 필요한 가르침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다. 정보윤리로 응용 가능한 불교윤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불교윤리는 기본적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치지 않기, 도둑질 안하기, 거짓말 안하기, 부적절한 남녀관계 안하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규범의 내용은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불교의 오계에 있는 불상생, 불투도와 불망어, 불사음이 이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오계에서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책으로써 악플은 불망어, 해킹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피해는 불투도, 인터넷 중독은 불음주, 음란이나 인터넷 성매매는 불사음, 자살 사이트는 불상생의 계막에서 관련되는 내용을 논증하여 정당화할

수 도할 수 있다. 오계에 포함되는 가르침은 오계의 불망어가 심입과 팔정도의 정어에서는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등으로 세분화되었듯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이처럼 불교경전에서 응용가능하고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불교윤리는 보편성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 보편성의 원리인 ‘역지사지(己之사지)의 원리’ 지니기 때문이다. 불교의 경전(잡아함경 비유라다경)에서는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기쁘히 죽고 남도 그를 죽이기 때문에 남을 죽일 수 없다”고 역지사지의 원리이다. 이것은 모든 종교와 윤리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성의 원리를 강조한다. 불교윤리가 보편성을 지닌다는 것은 세계윤리가 될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윤리가 세계윤리가 되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된다. 셋째, 불교윤리는 도덕 교육적으로 합리적이다. 도덕성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인격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도덕 교육은 도덕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사고, 판단력, 바른 삶을 추구하는 도덕적 심성을 기르는 한편 이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의 육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불교의 지혜와 자비심을 도덕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한 지혜와 자비심은 도덕적 지혜와 정서를 포함하며 계를 실천하는 것은 도덕적 행동이 된다. 영국의 종교학자 데미엔 키언에 의하면 불교를 합리주의의 철학으로 해석함으로써 서양에서 인기가 있다고 한다. 이런 해석이 발전하여 불교에 주요적인 풍토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윤리가 도덕성의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갖추고 있다는 현대 윤리학적 해석은 현대인에게 불교윤리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상의 불교윤리의 장점은 불교윤리를 응용한 후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불교윤리의 장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불교윤리의 응용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불교윤리를 응용하기 위해 재해석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존의 불교를 달리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불교윤리 응용과 정보윤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광고국 (02)2004-8213-7 쇼핑용 연불닷컴 www.hyunbulshop.com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정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남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신제품
MSM Glucoaid & Omega3 Cream
MSM Glucoaid & Omega3 Cream
세상에 이럴수가 통증이 싹~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글루코사민 오메가3 크림은 관절의 연골조직을 강화하고 충격흡수를 도와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 손상된 관절연골 재생 및 세포조직을 환원 작용한다.
■ 문질러 발라주세요
▶ 허리, 팔, 다리, 무릎, 어깨에 통증이 있으신 분
▶ 근육통이 있으신 분
▶ 반복작업을 계속하는 기능공 직장인
▶ 수술후에도 통증이 있으신 분
▶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 분
▶ 골프,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120ml × 2개 가격 3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

치아통증 이제 끝! 신비의 견운모 치약 지긋지긋한 치아로부터 해방!
견운모치약이 이렇게 좋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 버리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견운모 치약은 고품질의 희귀원소가 함유(원적외선 92.5%)된 광물질로 구강 내 살균 소독 효과는 물론 세균증식을 억제하여 잇몸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 및 치유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효능 효과 ◎
▶ 잇몸질환 예방 ▶ 구취 제거
▶ 치주질환 예방 ▶ 시린 이 개선
▶ 충치예방 ▶ 미백효과
▶ 치태제거
200g × 2개 가격 25,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은행 015-01-415953 최성욱